

### BBS 대담

진행: 정병조 교수

제15대 대선고지를 향해 달리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정병조 교수(동국대 부총장)의 진행으로 불교방송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방송됐다. 6일 신한국당 이회창, 7일 국민회의 김대중, 8일 지민련 김종필, 9일 민주당 조순, 10일 이인제 후보 순으로 진행된 이번 방송대담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불교의외 종교·문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에 걸쳐 정책을 밝혔다. 이중 불교계의 현안인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 등 종교 문화 관련 정책을 밝혀 요약한다. 아울러 본지 139호 7면에 게재했던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 후보의 종교정책과 이인제 조순 후보의 종교정책을 추가해 주요사안만 다시 표로 정리한다.



### 이회창 (신한국당) "불교 민족문화 원천"

불교는 민족문화의 원천이고 우리 생활과 풍속에 깊이 스며있는 전통종교라 각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 갈등은 없을 수 없다. 고대 인도의 아쇼카왕 당시도 다종교사회였지만 아쇼카왕은 서로 존중할 것을 골자로 한 칙령을 발표했다. 기원전 3세기에 펼쳤던 종교 화합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본보기로 삼을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는 합동징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가야산에 팔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겠지만 문화재 보존에 역행하는 개발은 적극 피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문화재 전문가 및 스님들과 협의해서 문화재 보존과 사지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황룡사·미륵사지 복원은 꼭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다.



### 김대중 (국민회의) "입장료 사찰 자율에"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문화재의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점을 감안,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보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입장료는 받지 않는 방법이고, 또 문화재는 불교의 재산이므로 관리권을 전부 사찰에 주고 입장료는 사찰이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는 방향이다.

좁은 국토에서 한정된 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라고 본다. 사찰의 입장을 우선시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 팔공장의 경우 판결난 후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불교계와 협의하면서 고려하겠다.

대통령이 자기종교단을 비호하는 것은 자기종교를 타락시키는 길이다. 각 종교가 자유롭게 발전해야 진정한 정의 사회다.



### 김종필 (지민련) "사찰, 환경보존 보루"

종교는 각자가 선택하지만 상호 존중해야 한다. 요즘 사찰문화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의적이거나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화 또는 개발 등으로 사찰환경이 위협받는 건 중대한 문제다.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자연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사찰환경을 훼손을 막아야 한다. 개발과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사찰환경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환경보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는 공단과 해당사찰이 잘 타협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환경부나 문화부의 중재도 필요하다. 군부대에서 포고 지원금을 차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형평성을 잃고 있다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 순 (민주당) "종교, 사회갈등 치유"

종교의 목적은 사회평화 갈등해소 치유에 있다. 비록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집안이 다 불교라 심정적으로는 불자다. 개인적으로는 탄허스님, 한마음선원 대행스님 등과 인연이 있다. 얼마전 부산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전산화 기원 대법회에도 참가했다. 매년 징수되는 입장료가 270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합동징수를 계속 하고 공원유지비 비율보다 문화재관리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사찰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장 재직 당시엔 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탑골공원 원각사비가 산성비로 훼손되고 있다고 귀띔해줘 비자를 설치했다. 해인사 팔공장 등 사찰환경보존은 우리 일이 담긴 문화재라는 점을 명심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찰환경보존문제는 돈보다는 정의와 의지가 문제라고 본다.



### 이인제 "종교 협력 정부역할"

헌법에서조차 국교없이 중립을 지키는데,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정책은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 종교간의 공존과 협력을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합동징수를 잘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연히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자제를 폐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총담해야겠지만 안된다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사찰은 끊임없이 보수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재이고 전통적인 사찰 환경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해인사 팔공장 문제가 당국의 조정능력이 한계가 있고 개인업자 역시 건설을 고수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불교인들 중심으로 당국도 협력하고 사업지도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

연도 1997년 10월 15일

당의 종교정책	지원협조, 종교를 시민교육장으로	특정종교 비호·배척 배제	종교의 사회적 역할보장	정(政)·교(敎) 분리로 자유보장	국민의 삶과 질 향상
종교간 화합방안	종교 본래의 목적에 충실	타종교 인정하는 합리적 사고 필요	편향된 종교정책 시정과 제도 수정	상호존중 풍토 정착화	배타성 완화, 관용성 강조 교육
군 1인1종교 갖기	일률적 강요 반대	종교 안가질 권리도 있어 무리	특정종교 편향 우려, 반대	종교선택은 기본권, 자율적으로	종교 강요 안된다
타종교 비방행위	처벌방안, 문화정치 실시	바람직한 종교활동위해 강력 대처	법인 색출, 엄격한 처벌	엄격한 법률적용	철저한 원인규명, 단속·처벌 강화
종교, 당선 후 신앙생활	천주교, 타종교 존중도 신앙인의 자세	천주교, 경건한 마음으로 공인답게	감리교, 대승적 불교관으로 타종교 예우	무교, 어떤 종교든 존중	무교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
사이비종교 척결	국민정신건강 위해 척결	현행법 지속 경우 법적 해결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	법적 제재 불가피	원인인 사회불안 요소 제거
사찰환경보존 대책	당정협의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	정책적 대안마련 계획	사찰환경영향 평가 실시	미래지향적 정책 차원에서 보호	정신도량 보호 차원에서 당연
문화재보존 정책	문화유산 우선 정책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관리국을 정으로 승격, 예산지원	문화재 보호는 문화수준의 향상	거시적 틀에서 적극 지원
팔만대장경 전산화	전산화작업 지원	영구보존의 방법, 당연히 필요	원만한 회향까지 지원	보존은 당연한 책무	국위선양에 도움
불교관계법 개정	불교계 의견수렴, 조기매듭 노력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	사찰농지 취득보장 마땅	무절제한 개발제한 입법화	예외규정과 다각적 검토 필요
종교계 과세	영리목적이라면 세금납부	종교재산특별법 제정 검토	형평성 고려, 종교재산특별법 제정	비과세 원칙, 영리목적일 경우 과세	종교법인의 부동산 규정은 불합리
종교법인제 도입	협의통해 정부에 건의	종교 특수성 감안, 신중히 검토	반드시 필요	일반법인법과의 차별성 검토	종교의 특수성 감안 필요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관계부처와 협의, 실행허가	절차상의 문제 없다면 허가	전국적 방송정취 위해 허가	타종교와 형평성 고려	형평성 원칙에서 허가
남북종교교류	대남전락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권장할 사안, 창구 정부로 단일화	정부 적극지원 협조	남북 신뢰회복에 도움	민족통합 차원에서 큰 역할
종교인 진보적 사회참여	건전한 사회발전에 도움	보살정신에 근거한 참여, 긍정적	종교 순수성 훼손 없다면 무방	종교정신에 바탕한 활동해야	'화해중생' 차원에서 긍정적
화쟁사상의 현대적 응용	균형적 사회발전 도모가능	통일문제 해결에 시사점 제공	민족화해와 동질성 회복에 바탕	민족발전을 도모할 기본 사상	우리사회의 정신적 길잡이
가장 감명 깊은 불서	법정스님 <무소유>	<부처님의 생애>	<금강경> <백암록> <대승기신론>	<금강경>	<법구경>
청소년문제 해결 방안	의식개혁운동 필요	실력위주의 사회 지향	입시제도 개선, 인성교육 실시	입시제도 개선, 가치관 개선 선도	가정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과서 불교관련 오기	반드시 시정토록 조치	마땅히 옳바르 고쳐야	반드시 고쳐야	반드시 시정	전문가에 의뢰, 시정

###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입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백(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편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 운전면허 취득의 최대기회!

금강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으로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요즘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최고 57만원에서 최저 52만원되는 수강료

◎ 불자님께 해결 방안 제시 ◎

- 대상 : 직장인, 대학생, 주부님, 일반인, 만 18세 이상
- 방법 : 본학원 교육 1개월후부터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6개월~10개월)

■ 본 학원의 특징 ■

- 본 학원은 기능에서 도로 주행시험까지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 본 학원생은 학원에서 연습하여 학원에서 시험응시후 면허취득
- 직장인을 위한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교육 실시중
- ※ 시내 본 학원 통학차량 운행중 (버스노선 155, 285, 365, 385, 465, 558, 915 신가동 극락주유소 앞 하차)

★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본학원은 구.아성자동차학원입니다.)

마이카 시대의 봉사자  
**운전면허시험장 금강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화 (062)951-9833, 951-9855, 954-5267(신가동 극락강주유소앞)